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

강슬기

제주대학교 대학원
생활환경복지학과

2023년 8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

이 논문을 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강 슬 기

제주대학교 대학원

생활환경복지학과

지도교수 서미정

강슬기의 이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심사위원장

신세라



위 원

공유경



위 원

서미정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연구모형	6
II. 선행연구 고찰	7
1. 아동기 문제행동	7
2.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문제행동	8
3.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관련 변인	10
4. 통제변수	13
III. 연구방법	15
1. 연구대상 및 절차	15
2. 측정도구	16
3. 자료분석	19
IV. 연구결과	20
1.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20
2.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26
V. 결론 및 논의	39
참고문헌	44
부록	52
Abstract	59

표 목차

〈표 1〉 연구대상의 분포	15
〈표 2〉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23
〈표 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24
〈표 4〉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25
〈표 5〉 모의 감정코칭반응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28
〈표 6〉 모의 과민반응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30
〈표 7〉 모의 감정축소반응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32
〈표 8〉 모의 감정코칭반응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34
〈표 9〉 모의 과민반응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36
〈표 10〉 모의 감정축소반응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38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형	6
<그림 2> 모의 감정코칭반응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모형	27
<그림 3> 모의 과민반응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모형	29
<그림 4> 모의 감정축소반응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모형	31
<그림 5> 모의 감정코칭반응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모형	33
<그림 6> 모의 과민반응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모형	35
<그림 7> 모의 감정축소반응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모형	37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

강 슬 기

제주대학교 대학원 생활환경복지학과

요약

본 연구는 아동기 문제행동이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후 비행이나 범죄로 연결되는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문제행동 유형별로 차별화된 개입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수행되었다. 먼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집행기능 곤란이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집행기능 곤란 하위 요인의 독립적인 매개적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병렬식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아동의 성별과 부정적 정서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도 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고, 최종 70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집행기능 곤란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아동이 부정적 감정을 자주 느낄수록, 정서를 통제하는 일이나 계획 및 조직화하는 일에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아동은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았으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수용적 반응을 보일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의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여아보다 남아가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행동을 통제하

는 일이나 정서를 통제하는 일에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계획 및 조직화 곤란 또는 정서통제 곤란을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이해해주는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은 계획 및 조직화 곤란을 덜 느끼고 내재화 문제행동의 수준은 낮아지지만, 반면에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과도한 불안을 보이거나 무시하는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의 계획 및 조직화 곤란 또는 정서통제 곤란을 가중시켜 내재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에는 행동통제 곤란 또는 정서통제를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어머니가 수용해주는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은 행동통제 곤란을 덜 느끼고,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았지만, 반면에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과도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어머니의 입장에서만 판단하여 반응할수록 아동의 행동통제 곤란 또는 정서통제 곤란을 가중시켜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 및 집행기능 곤란의 영향력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라 차이를 밝힘으로써 문제행동 유형별 차별화된 개입 방안 마련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검증에서 집행기능의 하위 요인별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구체적인 기제를 밝힌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 집행기능의 객관적 측정, 그리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양방향적 관계 규명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 집행기능 곤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등학교 진입 후, 특히 학령 후기는 학업이 점차 어려워지고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동은 크고 작은 문제행동을 경험할 수 있다(박보경, 노지운, 2020). 교육부(2020)의 정서·행동특성 검사결과에 따르면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2017년 1만 6000명, 2018년 2만 1000명, 2019년 2만 21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기 문제행동은 표현되는 방식과 증상이 청소년기처럼 현저하지 않고 유아기처럼 급격하지도 않기 때문에 관찰이 쉽지 않다(장영애, 이영자, 2011). 문제행동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약 60% 정도는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적절한 개입 없이 방치될 경우 청소년기 비행이나 성인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허미정, 장석진, 2012; Thomas et al., 2010) 아동기부터 문제행동의 조기 개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행동은 크게 불안, 우울, 위축, 신체증상 등이 포함된 내재화 문제행동과 공격성, 비행 등으로 구성된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된다(Achenbach & Edelbrock, 1983).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중복 발생하여 관련성이 높다 하더라도(Lilienfeld, 2003), 그 원인 및 결과가 다른 것(이은주, 2010)은 아동의 부적응 문제를 심도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성을 인식시켜준다(강지현, 오경자, 2011). 이러한 문제행동의 발생에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 관여하는데,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과 관련된 양육행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정서 관련 양육행동에 주목하였다.

정서 관련 양육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자녀와 정서적 대화를 나누거나,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반응하는 태도를 말한다(Eisenberg et al., 1998). 특히 짜증이나 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

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은 자녀로 하여금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unn et al., 1991).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은 감정코칭반응, 과민반응, 그리고 감정축소반응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오지현, 2013). 감정코칭반응은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서를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며, 부정적 정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응이다. 과민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과도한 불안과 걱정을 보이는 반응을 말하고, 감정축소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무시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반응을 말한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 김지연과 남은영(2011)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 중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별을 주는 반응과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그대로 표현하는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의 공격행동의 수준은 높았다. 윤보람(201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은 낮았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지지적일수록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은 낮은 반면,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아동의 높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되었다(안효민, 2013). 이를 통해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는 개인적 요인 중 집행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집행기능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지기능과 행동을 제어·통제·지시하는 능력의 집합이다(Gioia et al., 2002).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집행기능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으나, 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게 보고되었다(차기주, 2015; Bernier et al., 2010; Fenesy & Lee, 2018; Granzino, 2009; Schroeder & Kelly, 2010).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녀에게 민감하고 온정적이며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행동을 나타낼 경우 아동은 높은 수준의 집행기능을 보인 반면(Bernier et al., 2010;

Fenesy & Lee, 2018; Schroeder & Kelly, 2010), 어머니가 지나친 통제나 간섭 또는 방임과 같은 양육행동을 나타낼수록 아동은 낮은 수준의 집행기능을 보였다 (차기주, 2015; Granzino, 2009). 민감하고 온정적이며 자녀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한계설정을 보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감성코칭 반응과 유사한 반면, 지나친 통제나 간섭 또는 방임과 같은 양육행동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과민반응 또는 감성축소반응과 유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따라 아동의 집행기능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아동의 집행기능은 문제행동과도 관련된다. 집행기능은 매우 구조화된 상황 속에서 주어진 규칙에 따라 생활해야 하는 학령기 아동에게 중요한데, 이는 집행기능이 부적절한 정서와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시켜 학교에서의 적응을 돕기 때문이다(이동형, 2009; Epsy et al., 2004; Graziano et al., 2007). 그러나 집행기능의 곤란을 경험하는 아동은 높은 수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내거나(박보경, 노지운, 2020), 높은 수준의 집행기능을 보이는 유아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영숙, 임지영, 2013; 신나나 외, 2017). 또한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등의 집행기능 곤란을 경험하는 아동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인 반면(Poland et al, 2016; Sulik et al., 2015),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집행기능 곤란은 공격적인 행동이나 반항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연결되었다(Granvald & Marciszko, 2016; Ogilvie et al., 2011). 이와 같이 집행기능의 다양한 측면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다르게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집행기능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동시에,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집행기능이 매개적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아동은 정서통제 혹은 행동통제와 같은 집행기능의 다양한 측면에서 높거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이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욱 강화시

키거나 약화시킬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집행기능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부족하므로, 본 연구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환경적, 개인적 측면에서 아동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집행기능에 대해 하위 요인을 구성하지 않고 통합된 단일 인지기능으로 간주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김혜원, 2023; 안소연, 2022; 허무녕, 2023), 본 연구에서는 집행기능에 대해 계획 및 조직화, 행동통제, 정서통제 및 부주의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자 한다(송현주, 2012).

한편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집행기능 곤란 및 문제행동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에서 남아의 어머니가 여아의 어머니보다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벌을 주거나 부정적 정서를 벌 것 아닌 것으로 축소하여 다루는 반응을 보인 반면(권연희, 이종희, 2005), 남아보다 여아의 어머니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수용적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안효민, 2013). 집행기능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계획 및 조직화 능력을 나타낸 반면(도레미 외, 2010),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주의력을 보여주었다(서정은, 2011). 문제행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고, 여아가 남아에 비해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다(강지현, 오경자, 2011; 송진영, 김규수, 2012).

부정적 정서 또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 집행기능 곤란 및 문제행동에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분노, 짜증과 같은 정서를 쉽게 느끼면서 진정이 잘 되지 않는 정도를 말하는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은 아동의 어머니는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꾸짖거나 부정적 정서를 축소하여 취급하는 반응 또는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그대로 나타내는 반응을 많이 보였다(권연희, 이종희, 2005; Eisenberg & Fabes, 1994). 또한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집행기능에서의 곤란을 가져왔으며(박서현, 강기수, 2019; 한기표, 2019), 높은 부정적 정서는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높은 수준과 관련되었다(김현아, 장혜인, 2017; Eisenberg, 2009; Scultz et al., 2004).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문제행동에 대한 예측 요인 및 매개효과 검증에서 성별과 부정적 정서를 통제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부정적 정서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때 집행기능 곤란을 계획 및 조직화, 행동통제, 정서통제 및 부주의 요인으로 구성하고,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각각의 독립적인 매개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병렬식 다중매개분석을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며, 문제행동 유형별 차별화된 개입 및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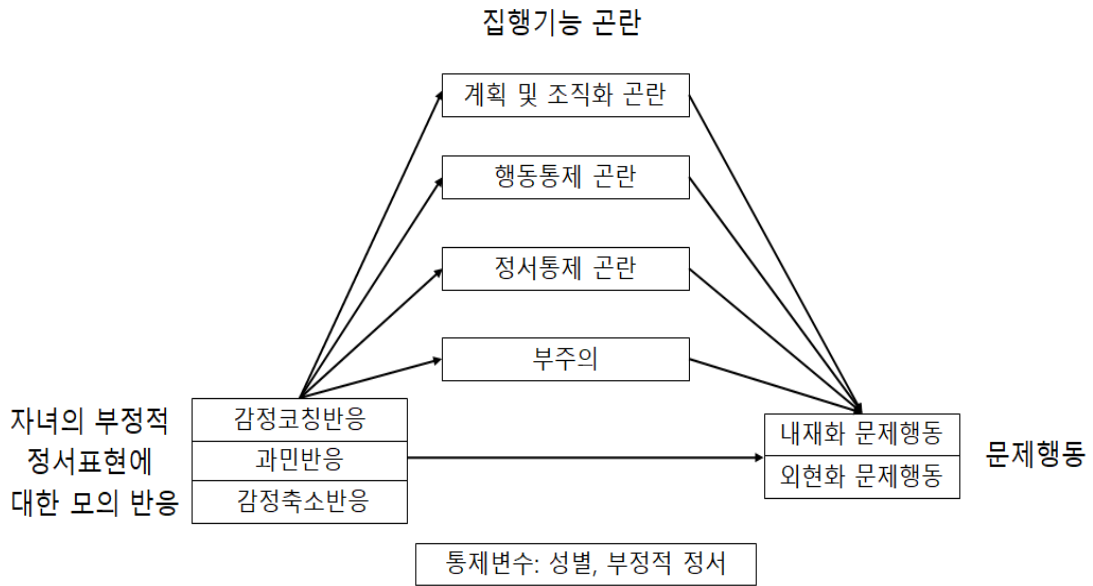
연구문제 2.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1)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2)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선행연구 고찰

1. 아동기 문제행동

문제행동이란 일반적으로 연령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말하며(김선희, 김경연, 2001), 대다수에 의해 기대되는 행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가족이나 학교에서 행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송명숙, 2016). 또한 한미현(1996)은 문제행동을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행동이 발생 빈도와 표출 정도에 있어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 벗어난 행동이며, 이런 행동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해 나가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유발된 행동적, 심리적 부적응이라 정의하였다. 문제행동은 갈등이 표출되는 양상에 따라 크게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된다(Achenbach & Edelbrock, 1981). 내재화 문제행동은 갈등이 억제되면서 불안, 우울, 위축, 신체증상과 같이 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말하며, 외현화 문제행동은 갈등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공격성, 비행과 같은 것을 말한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아동이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과도하게 내적으로 억압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말하며(성다겸, 2018) 불안, 우울, 위축 및 신체증상과 같은 문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아동기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들 중 하나이다. 먼저, 불안은 위협을 감지할 때 반응하는 감정으로 적절한 수준의 불안은 위협을 감지하여 적응적이지만, 과도한 불안은 집중력과 학업성취의 저하를 불러일으키며(정재훈, 이혜진, 2015),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는데 제한을 받는다. 우울은 울적한 기분 또는 흥미나 즐거움의 저하를 주요 증상으로 하는데, 수면패턴과 식욕의 변화, 집중력 곤란, 부정적인 정서와 사고의 침투 등 다양한 신체·인지·정서적 문제들을 동반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위축은 낯선 환경을 접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움츠러들며 긴장하는 반응으로(Rubin et al., 2009), 위축을 경험하는 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

용에 참여하지 않으며 이후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좌현숙, 2018). 신체증상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내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우울이나 불안과 같이 부정적 정서가 적절히 표현되지 못하고 억압되었을 때 신체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신체증상으로는 두통이나 복통, 메스꺼움과 같은 신체증상부터 청각이나 시각의 이상, 근육마비와 같은 신경학적인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아동기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비해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동기 내재화 문제행동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들어서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발달을 저해한다(정재훈, 이혜진, 2015).

한편, 외현화 문제행동은 아동이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밖으로 표출하며 생기는 문제를 말한다(성다점, 2018).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공격성과 비행이 있는데, 먼저 공격성이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는 행동이다(박인경, 2010). 비행은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여러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도덕에 어긋나는 잘못된고 그릇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김경식, 이현철, 2007).

2.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문제행동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은 일종의 정서관련 양육행동 중 하나로, 정서관련 양육행동이란 일상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모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거나, 정서적 대화를 나누고, 자녀의 정서에 대해 반응하는 태도를 말한다(Eisenberg et al, 1998). 특히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은 자녀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과 정서의 표출에 대해 어머니가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Kring et al., 1994). Dunn et al.(1991)과 Eisenberg et al.(1996)에 따르면 긍정적 정서표현보다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부정적 정서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자녀는 기능적인 문제해결방법을 학습하게 되기 때문이다(Eisenberg et al., 1998).

오지현(2013)에 따르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 감정코칭반응, 과민반응, 감정축소반응으로 구분하였다. 감정코칭반응은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위로해주고, 왜 부정적 감정이 들었는지 관심을 갖고 다음에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응을 말한다. 과민반응은 자녀가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의 수준보다 어머니가 지나친 걱정과 불안을 보이며 오히려 어머니가 더 힘들어하는 반응이다. 감정축소반응은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어머니의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반응하는 반응을 말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일관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공감해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 자녀는 정서적 각성을 줄이는 경험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고(Eisenberg et al., 1999), 이는 문제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면,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지나친 불안과 걱정을 보이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고 무시하는 반응을 보일 경우 아동은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Buck, 1984), 이는 부적절한 문제행동과 연결된다(Krause, 2003). 이를 통해 윤보람(2010)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이끌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아동기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서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안효민(2013)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 중에서도 특히나 부정적인 반응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부정적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3.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관련 변인

1) 집행기능 곤란의 개념 및 하위 요인

집행기능이란 Baddeley와 Hitch(1974)의 연구에서 중앙실행이라는 용어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김혜원, 2023), Gioia et al.(2001)는 집행기능을 주의집중, 부적절한 반응과 행동의 억제, 계획 수립 및 조직화, 인지적 유연성 등을 포함해 목표지향적 행동과 관련된 하위 과정을 통합하는 포괄적 구성개념이라 하였다. 집행기능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만큼 집행기능의 하위요인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며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이윤정, 2019), 송현주(2012)에 따르면 계획 및 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그리고 부주의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집행기능 곤란을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획 및 조직화 곤란은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의 계획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능력의 어려움을 말한다. 행동통제 곤란은 불필요한 행동이나 생각, 반응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의 어려움을 말한다. 정서통제 곤란은 부적절한 정서는 자제하고,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의 어려움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부주의는 주의력, 작업기억 등의 인지적 기능과 관련되며, 산만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는 성향을 말한다.

2)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집행기능 곤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지만,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집행기능 간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자녀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주며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는 높은 수준의 집행기능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이윤정 외, 2014; Bernier et al., 2010; Fenesy & Lee, 2018). Schroeder와 Kelly(201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적절한 제한설정이 아

동으로 하여금 감정조절을 가능하게 하며 더불어 사고와 행동을 억제하며 전환하는 능력인 집행기능과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을 하는 양육행동은 자녀가 집행기능을 사용할 기회를 박탈하며, 이는 집행기능의 발달을 지연시킨다고 하였다(Blair, 2002). 또한 박보경과 노지운(2020)의 연구에서도 양육행동과 집행기능과의 관련성을 밝혀냈는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보일수록, 1년 후 아동은 집행기능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 중 아동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적절한 한계를 지어주는 감정코칭반응은 일종의 온정적·애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아동의 높은 집행기능 수준과 관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오히려 무시하는 반응인 과민반응과 감정축소반응은 일종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 또는 방임을 하는 양육행동으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3)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과 문제행동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집행기능 곤란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공영숙, 임지영, 2012; 노민정, 박혜원, 2011; Hughes & Ensor, 2008; Ogilvie et al., 2011; Poland et al., 2016; Rohlif et al., 2018; Sulik et al., 2015). 집행기능은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의 인지를 조절하고 정서와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능력인데, 문제행동이 심각해지기 전 집행기능 결함의 징후가 먼저 나타나기에,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집행기능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하였다(Riggs et al., 2003).

집행기능의 곤란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었는데, 집행기능의 곤란을 경험할수록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Poland et al., 2016; Sulik et al., 2015). 또한 집행기능은 우울이나 불안한 감정을 억제하도록

도와주고,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인지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에 내재화 문제행동의 수준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Riggs et al., 2003). 뿐만 아니라 집행기능의 결함을 경험하는 아동은 외현화 문제행동과도 관련이 높았는데, 집행기능의 결함을 경험하는 아동은 충동적 행동을 조절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적절히 대처하는 데에 실패하기 때문에 공격성, 과잉행동, 반항적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공영숙, 임지영, 2012; 노민정, 박혜원, 2011; Hughes & Ensor, 2008). 집행기능과 관련한 국외의 연구에서는 집행기능 결함이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되었고, 특히 외현화 문제행동 중에서도 신체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Ogilvie et al., 2011)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종단연구에서도 아동의 집행기능 결함은 약 3년 후의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Rohlf et al., 2018)가 이를 뒷받침한다.

4)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적 역할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아동의 문제행동 및 집행기능 곤란은 서로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호 간 밀접한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공감해주는 반응은 집행기능의 어려움을 덜 경험하게 되고, 이는 문제행동의 수준을 낮추게 되지만 반면, 어머니가 과도한 불안과 걱정을 보이거나 무시하는 반응은 아동으로 하여금 집행기능의 어려움을 더 경험하게 하고, 이는 문제행동의 수준을 높일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공격적 행동 간의 관계를 집행기능이 매개하였다고 보고한 김소라와 신나나(2020)의 연구가 이와 유사한 맥락이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중

단적으로 살펴본 한영숙과 정영선(2022)의 연구에서도 만 6세 때의 부모의 양육 행동이 집행기능을 통해 2년 후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했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국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에 따라 자녀의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통해서도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Sally & Julie, 2002)가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를 통해 일종의 자기조절능력인 집행기능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 예측된다.

4. 통제변수

1) 성별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권연희, 이종희, 2005; 박광향, 2009; 안효민, 2013)들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효민(2013)의 연구에서 남아의 어머니보다 여아의 어머니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수용적 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차는 집행기능에서도 나타나고 하위요인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고되었다. 도레미 외(2010)에 의하면 남아가 여아보다 계획 및 조직화 능력에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결과가 있는 반면, 서정은(2011)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주의력이 더 높다고 보고한 결과가 있다. 더불어 성별은 아동의 문제행동에서도 성차를 밝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였다는 연구(강지현, 오경자, 2011), 여아는 남아에 비해 우울이나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는 연구(송진영, 김규수, 2012)가 있으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김선희, 김경연, 2001).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기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의 성별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의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란 까다로운 기질의 핵심 요소로 아동이 분노, 짜증 등 부정적 정서를 쉽게 느끼고 진정이 잘 되지 않는 정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Eisenberg et al., 2005).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정서를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정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워져 문제행동에 취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현아, 장혜인, 2017). 선행연구에서도 높은 부정적 정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일관되게 예측하였다(Eisenberg et al, 2009; Schultz et al., 2004; 성미영, 권기남, 2010). 아동의 부정적 정서는 부모의 반응성과도 높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는데, 권연희와 이종희(2005)의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가 높은 아동의 어머니는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꾸짖거나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별 것 아닌 것으로 축소하여 취급하는 반응 또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그대로 나타내는 반응을 많이 보였다(Eisenberg & Fabes, 1994). 한편, 아동의 부정적 정서와 집행기능은 서로 비슷한 신경학적 기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한기표, 2019). 즉, 집행기능은 특정 뇌영역에서 발달을 하는데, 부정적 정서의 수준이 높을수록 집행기능이 발달하는 뇌영역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아기 부정적 정서가 아동의 집행기능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서현, 강기수, 2019).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모집단은 학령 후기 아동이며, 표본은 제주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다. 설문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2개교에 800부가 배부되었고, 그 중 758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과 결측 사례 49부를 제외하여 총 70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조사는 2023년 4월과 5월에 걸쳐 학급별로 담임 교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모든 참여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었다.

연구대상의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학생이 330명(46.5%), 여학생이 379명(53.5%)이었으며,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이 399명(56.3%), 초등학교 6학년이 310명(43.7%)이었다. 학교마다 한 학급 당 학생 수는 26명에서 28명의 범위에 있었다.

<표 1> 연구대상의 분포

	5학년(%)	6학년(%)	전체(%)
남학생	185 (26.1%)	145 (20.5%)	330 (46.5%)
여학생	214 (30.2%)	165 (23.3%)	379 (53.5%)
전체	399 (56.3%)	310 (43.7%)	709 (100%)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1991)가 개발하고 오경자 외(1997)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의 119문항 중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해당하는 문항을 본 연구대상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위축 7문항, 신체증상 9문항, 우울 및 불안 15문항 등으로 총 31문항이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비행 11문항, 공격성 19문항 중에서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비행 2문항(‘나는 술을 마시거나 치료목적으로 쓰는 것 이외에 약물을 사용한다.’, ‘나는 또래보다는 나이가 많은 애들과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을 삭제하여 총 2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K-YSR의 각 문항은 아동 자신이 지난 6개월 동안에 보인 문제행동에 대해 ‘전혀 아니다’에서 ‘자주 그렇다’까지 3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내재화 문제행동 .90, 외현화 문제행동 .87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오지현(2013)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본 연구 목적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1문항 5점 Likert 척도이며, 감정코칭반응(10문항), 과민반응(5문항), 감정축소반응(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변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유형의 특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감정코칭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수용해주며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면서 동시에 행동에 한계를 정해주는 반응을 말하며,

문항은 ‘나를 위로해주시고 그 일을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등으로 측정하였다. 과민반응은 자녀가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의 수준보다 어머니가 과도한 불편함을 보이는 반응으로, ‘나보다는 오히려 어머니가 더 힘들어하신다.’ 등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정축소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감정을 무시하며 주로 어머니의 입장에서 반응하는 유형으로 문항은 ‘내가 말해도 별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을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으로 측정하였는데,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자녀가 지각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임정하, 2006).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감정코칭반응 .93, 과민반응 .82, 감정축소반응 .87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 집행기능 곤란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측정하기 위해 송현주(2014)가 개발한 척도를 연구 목적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집행기능은 사고와 행동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일종의 정신기능이며,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거나 조직화를 할 때 필요한 기능이다. 송현주(2014)의 집행기능 곤란은 계획 및 조직화 곤란 11문항, 행동통제 곤란 11문항, 정서통제 곤란 8문항, 부주의 10문항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 및 조직화 곤란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조직화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며, 문항은 ‘자신이 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 등으로 측정하였다. 행동통제 곤란은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는 것의 어려움을 말하며, 문항의 예로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내 행동을 조절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다.’가 있다. 정서통제 곤란은 부적절한 정서를 조절하고 정서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을 말하며, 문항은 ‘잘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낸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부주의는 산만하고 사소한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의 어려움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 ‘내 물건을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훑리고 다닌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송현주(2014)의 척도 가운데 내용이 중복된다고 판단된 3문항과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데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3문항을 제외하고 구성하였다. 중복되는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동통제 곤란을 측정하는 문항 중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내 행동을 조절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다.’와 유사한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문항을 제외하였고, 부주의를 측정하는 문항 중 ‘해야 되는 일을 잘 잊어버린다.’와 중복된다고 판단한 ‘잘 잊어버린다.’를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주의를 측정하는 문항 중 ‘방이나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와 유사하다고 판단된 ‘옷, 안경, 양말, 장난감, 책, 연필 등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를 제외하였다. 집행기능 곤란을 측정하는 데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된 3문항은 행동통제 곤란에 속한 ‘글쓰기가 어렵다.’와 ‘나는 내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이 야단을 치거나 핀잔을 주어도 별 상관하지 않는다.’, 부주의 요인에 속하는 ‘물건이나 방을 잘 어질러서 다른 사람이 치워야 한다.’이다.

본 연구에서 집행기능 곤란은 계획 및 조직화 곤란 11문항, 행동통제 곤란 8문항, 정서통제 곤란 8문항, 부주의 7문항으로 총 34문항을 구성하였다. 원 척도는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자주 그렇다’의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측정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해당 집행기능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계획 및 조직화 곤란 .90, 행동통제 곤란 .85, 정서통제 곤란 .90, 부주의 .88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성별과 부정적 정서

성별은 여학생을 0, 남학생을 1로 코딩하였다. 부정적 정서는 이은경과 이양희(2006)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원 척도는 긍정적 정서 24문항과 부정적 정서 33문항 총 5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 33문항

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자주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9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성별 및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 점수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의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연구문제 2의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Hayes(2018)가 제시한 process macro version 4.2(model 4)를 이용하여 병렬식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10,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병렬식 다중매개분석은 하나의 모형에서 최대 10개까지의 매개변인을 투입할 수 있고, 투입된 매개변인의 매개효과를 동시에 추정하여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석에는 변인들의 점수를 표준화 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4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IV. 연구결과

1.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집행기능 곤란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앞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먼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모의 감정코칭반응은 과민반응($r = .164, p < .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감정축소반응($r = -.298, p < .0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우울이나 불안, 짜증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그 감정에 대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불안이나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수용적으로 받아주는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어머니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무시하는 반응은 적게 보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민반응과 감정축소반응($r = .422, p < .001$)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무시하는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559에서 .759사이에서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 계획 및 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및 부주의 간 서로 연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계획 및 조직화 하는 일의 어려움이나, 행동을 통제하거나 정서를 통제하는 일의 어려움 및 주의

를 기울이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경우 집행기능의 다른 하위요인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r = .545, p < .001$)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우울이나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아동은 비행이나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모의 감정코칭반응은 내재화 문제행동($r = -.257, p < .001$) 및 외현화 문제행동($r = -.189, p < .001$)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모의 과민반응의 경우 내재화 문제행동($r = .160, p < .001$)과 외현화 문제행동($r = .177,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고, 모의 감정축소반응 또한 내재화 문제행동($r = .326, p < .001$)과 외현화 문제행동($r = .282, p < .001$)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위로해주시고,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머니의 자녀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덜 나타내지만 반면, 자녀가 표현하는 부정적 감정을 지나치게 감싸주려고만 하거나 자녀의 부정적 감정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반응을 보일 때, 아동은 우울이나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비행이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집행기능 곤란과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362에서 .607의 범위에서 집행기능 곤란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즉,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조직화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서를 통제하고 자제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및 사소한 일에 주의를 지속적으로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경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집행기능 곤란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먼저 모의 감정코칭반응은 집행기능 곤란의 각 하위요인들과 -.242에서 -.202의 범위에서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수용해줌과 동시에 적절한 한계를 설정을 해줄 때 아동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사고와 행동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일을 도

와주는 집행기능의 어려움을 덜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모의 과민반응은 집행기능 곤란의 각 하위요인들과 .181에서 .262의 범위에서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모의 감정축소반응 또한 집행기능 곤란의 각 하위요인들과 .259에서 .357의 범위에서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이나 자녀가 왜 부정적 감정이 들었는지 알고 하지 않는 무관심한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행동과 정서를 통제하는 기능인 집행기능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통제변수로 설정한 성별의 경우 모의 과민반응($r = .128, p < .01$)과 행동통제 곤란($r = .120, p < .01$), 외현화 문제행동($r = .095, p < .05$)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여아의 어머니보다 남아의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지나친 불편함을 보이며, 여아보다 남아가 행동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여아보다 남아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냄을 의미한다. 부정적 정서의 경우 모의 감정코칭반응($r = -.265, p < .001$)과는 부적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나머지 변인인 모의 과민반응과 감정축소반응, 집행기능 곤란 그리고 문제행동 간에는 .198에서 .683의 범위에서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쉽게 느끼고 진정이 잘 되지 않는 아동의 어머니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위로해주시거나 응원해주시는 반응을 적게 보이고,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과도한 걱정을 보이거나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반응을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또한 부정적 정서를 자주 느끼고 경험하는 아동은 부적절한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시켜주는 집행기능에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이나 불안, 위축, 신체증상을 보이는 내재화 문제행동 및 비행이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9	10	11
통제 변인	1										
1. 성별											
2. 부정적 정서	-.036	1									
3. 감정요청반응	.034	-.265 ^{***}	1								
4. 과민반응	.128 ^{**}	.198 ^{***}	.164 ^{***}	1							
5. 감정축소반응	.047	.377 ^{***}	-.298 ^{***}	.422 ^{***}	1						
6. 계획 및 조직화 곤란	.040	.475 ^{***}	-.229 ^{***}	.227 ^{***}	.323 ^{***}	1					
7. 행동통제 곤란	.120 ^{**}	.485 ^{***}	-.202 ^{***}	.262 ^{***}	.337 ^{***}	.759 ^{***}	1				
8. 정서통제 곤란	-.008	.660 ^{***}	-.242 ^{***}	.181 ^{***}	.357 ^{***}	.605 ^{***}	.644 ^{***}	1			
9. 부주의	-.034	.412 ^{***}	-.208 ^{***}	.182 ^{***}	.259 ^{***}	.672 ^{***}	.611 ^{***}	.559 ^{***}	1		
10. 내재화 문제행동	-.015	.683 ^{***}	-.257 ^{***}	.160 ^{***}	.326 ^{***}	.473 ^{***}	.457 ^{***}	.607 ^{***}	.362 ^{***}	1	
11. 외현화 문제행동	.095 [*]	.529 ^{***}	-.189 ^{***}	.177 ^{***}	.282 ^{***}	.473 ^{***}	.589 ^{***}	.594 ^{***}	.449 ^{***}	.545 ^{***}	1
척도의 점수범위	-	1~4	1~5	1~5	1~5	1~5	1~5	1~5	1~5	1~3	1~3
평균	-	1.85	3.37	2.13	1.98	2.35	1.78	2.29	2.27	1.44	1.26
표준편차	-	.027	.040	.034	.035	.032	.026	.037	.038	.011	.008

주. 성별: 여아 0, 남아 1

* $p < .05$, ** $p < .01$, *** $p < .001$

2)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이때 통제변수로 아동의 성별과 부정적 정서를 투입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beta = .478, p < .001$), 모의 감정코칭반응($\beta = -.061, p < .05$), 계획 및 조직화 곤란($\beta = .133, p < .01$) 그리고 정서통제 곤란($\beta = .222, p < .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재화 문제행동의 52%를 설명하였다. 즉, 아동이 우울이나 불안, 화, 짜증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신체증상이나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자녀가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적절한 한계를 설정해주며 수용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덜 나타내는 반면, 아동이 계획 및 조직화하는 일과 부적절한 정서를 통제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아동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표 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B(SE)	β	R^2	F
통제변수	성별	-.008(.055)	-.004		
	부정적 정서	.479(.037)	.478***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	감정코칭반응	-.061(.031)	-.061*	.521	82.017***
	과민반응	.012(.032)	.012		
	감정축소반응	.012(.033)	.012		
	계획 및 조직화 곤란	1.132(.045)	.133**		
집행기능 곤란	행동통제 곤란	.001(.045)	.001		
	정서통제 곤란	.222(.042)	.222***		
	부주의	-.067(.038)	-.067		

주. 성별: 여아 0, 남아 1

* $p < .05$, ** $p < .01$, *** $p < .001$

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이때 통제변수로 아동의 성별과 부정적 정서를 투입하였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아동의 성별($\beta = .074, p < .05$), 부정적 정서($\beta = .223, p < .001$), 행동통제 곤란($\beta = .355, p < .001$) 그리고 정서통제 곤란($\beta = .229, p < .0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현화 문제행동의 46%를 설명하였다. 이는 여아보다 남아가 비행이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쉽게 느끼며 진정되지 않을수록 아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며, 아동이 행동과 정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수록 아동은 갈등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인 감정코칭반응, 과민반응 및 감정축소반응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B(SE)	β	R^2	F
통제변수	성별	.148(.058)	.074*	.457	63.518***
	부정적 정서	.223(.039)	.22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	감정코칭반응	-.012(.032)	-.012		
	과민반응	-.003(.034)	-.003		
	감정축소반응	-.004(.035)	-.004		
집행기능 곤란	계획 및 조직화 곤란	-.096(.048)	-.097		
	행동통제 곤란	.352(.048)	.355***		
	정서통제 곤란	.228(.044)	.229***		
	부주의	.072(.040)	.072		

주. 성별: 여아 0, 남아 1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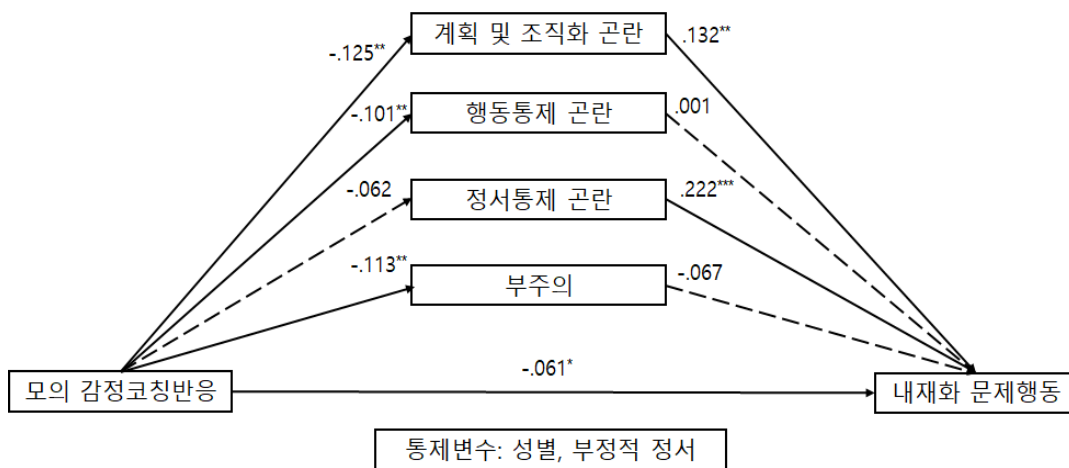
2.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Hayes가 제시한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성별과 부정적 정서가 변인들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요인인 계획 및 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의 매개효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병렬식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분석한 모형의 유의성은 독립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 순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10,000번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표본 수와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반복 추출하여 신뢰구간을 구하고, 신뢰구간 내의 하한값(LLCI)와 상한값(ULCI) 사이 0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1)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1) 모의 감정코칭반응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모의 감정코칭반응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먼저 모의 감정코칭반응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유의한 것($B = -.061, p < .05$)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의 감정코칭반응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의 감정코칭반응이 계획 및 조직화 곤란($B = -.125, p < .01$), 행동통제 곤란($B = -.101, p < .01$), 정서통제 곤란($B = -.062, p < .05$), 부주의($B = -.113,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정서통제 곤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요인 가운데 계획 및 조직화 곤란($B = .132, p < .01$)과 정서통제 곤란($B = .222, p < .001$)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행동통제 곤란과 부주의가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모의 감정코칭반응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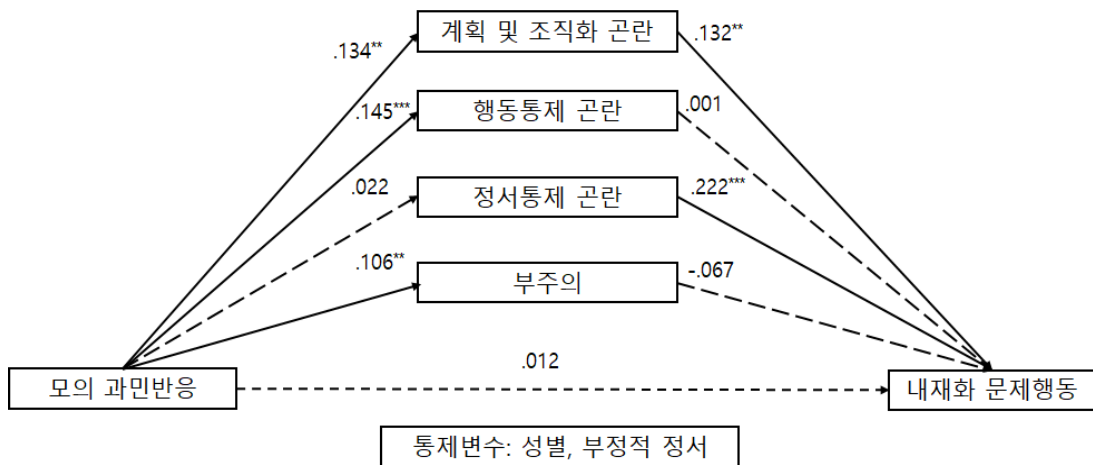
모의 감정코칭반응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모의 감정코칭반응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총효과($B = -.084, p < .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모의 감정코칭반응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B = -.061, p < .05$)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행기능 곤란을 통한 총 간접효과($B = -.023, 95\% CI = -.045 \sim -.00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그 중 계획 및 조직화 곤란을 통한 간접효과($B = -.017, 95\% CI = -.034 \sim -.004$)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모의 감정코칭반응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계획 및 조직화 곤란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녀의 짜증이나 화,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다음에는 부정적 정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정코칭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동시에, 감정코칭반응을 보이는 어머니의 아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짜고 조직화 하는 일에 어려움을 덜 경험하게 되고, 이는 낮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연결됨을 의미한다.

<표 5> 모의 감정코칭반응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B	SE	LLCI	ULCI	t	p
총효과	-.084	.032	-.146	-.022	-2.654	.008
직접효과	-.061	.031	-.121	-.001	-1.991	.047
총 간접효과	-.023	.011	-.045	-.003		
간접효과						
계획 및 조직화 곤란	-.017	.008	-.034	-.004		
행동통제 곤란	.000	.005	-.011	.011		
정서통제 곤란	-.014	.009	-.033	.001		
부주의	.008	.005	-.001	.020		

(2) 모의 과민반응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모의 과민반응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먼저 모의 과민반응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의 과민반응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모의 과민반응이 계획 및 조직화 곤란($B = .134, p < .01$), 행동통제 곤란($B = .145, p < .001$) 및 부주의($B = .106,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정서통제 곤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요인 가운데 계획 및 조직화 곤란($B = .132, p < .01$)과 정서통제 곤란($B = .222, p < .001$)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고, 행동통제 곤란과 부주의가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 $p < .01$, *** $p < .001$

<그림 3> 모의 과민반응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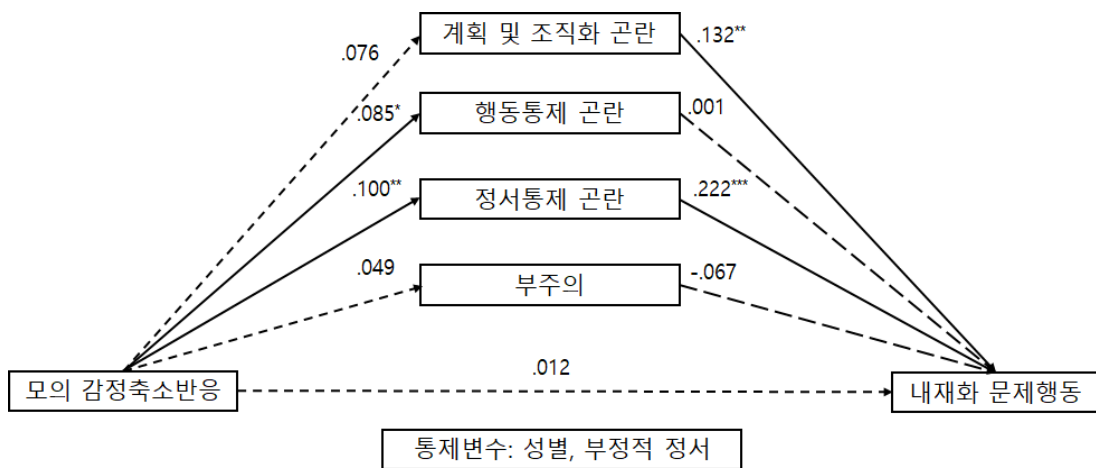
모의 과민반응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모의 과민반응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 및 총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의 과민반응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계획 및 조직화 곤란을 통한 간접효과($B = .018, 95\% CI = .004 \sim .037$)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모의 과민반응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계획 및 조직화 곤란을 매개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아동이 느끼는 부정적 정서의 수준 보다 어머니가 지나친 불안이나 걱정을 나타내는 과민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조직화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는 위축이나 신체증상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표 6> 모의 과민반응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B	SE	LLCI	ULCI	t	p
총효과	.027	.033	-.038	.092	.822	.411
직접효과	.012	.032	-.052	.075	.362	.717
총 간접효과	.016	.011	-.006	.038		
간접효과						
계획 및 조직화 곤란	.018	.008	.004	.037		
행동통제 곤란	.000	.008	-.016	.015		
정서통제 곤란	.005	.008	-.010	.021		
부주의	-.007	.005	-.020	.001		

(3) 모의 감정축소반응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모의 감정축소반응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분석한 모형은 <그림 4>와 같다. 먼저 모의 감정축소반응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의 감정축소반응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모의 감정축소반응이 행동통제 곤란($B = .085, p < .05$) 및 정서통제 곤란($B = .100,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계획 및 조직화 곤란과 부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요인 가운데 계획 및 조직화 곤란($B = .132, p < .01$)과 정서통제 곤란($B = .222, p < .001$)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행동통제 곤란과 부주의가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모의 감정축소반응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모형

모의 감정축소반응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모의 감정축소반응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의 감정축소반응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수를 통한 총 간접효과($B = .029$, 95% CI = $.007 \sim .057$)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요인 중 정서통제 곤란을 통한 간접효과($B = .022$, 95% CI = $.004 \sim .046$)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모의 감정축소반응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정서통제 곤란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녀가 느끼고 표현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어머니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 감정축소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은 상황에 맞게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일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는 갈등이 내적으로 나타나는 위축, 신체증상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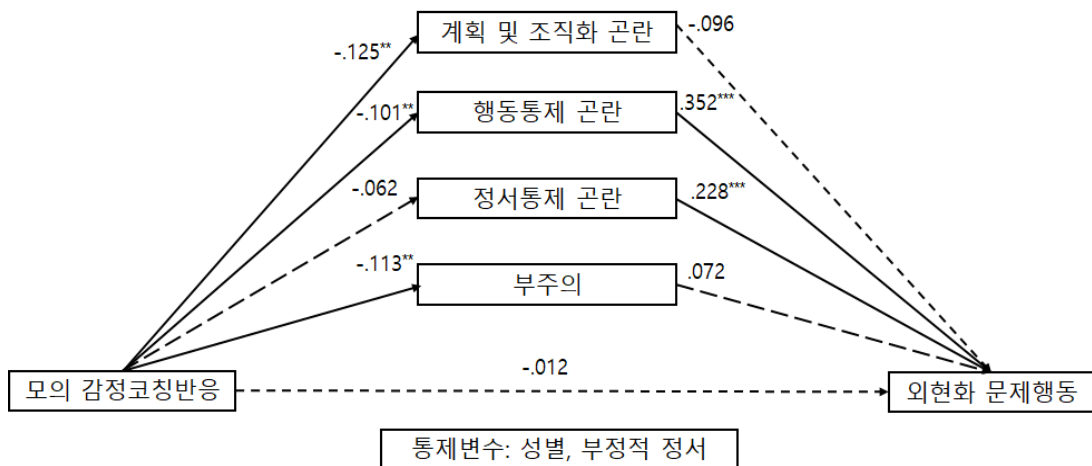
<표 7> 모의 감정축소반응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B	SE	LLCI	ULCI	<i>t</i>	<i>p</i>
총효과	.041	.035	-.026	.109	1.198	.231
직접효과	.012	.033	-.053	.078	.371	.711
총 간접효과	.029	.013	.007	.057		
간접효과						
계획 및 조직화 곤란	.010	.007	-.001	.026		
행동통제 곤란	.000	.005	-.010	.010		
정서통제 곤란	.022	.011	.004	.046		
부주의	-.003	.004	-.012	.003		

2)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1) 모의 감정코칭반응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모의 감정코칭반응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모형은 <그림 5>와 같다. 먼저 모의 감정코칭반응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의 감정코칭반응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모의 감정코칭반응이 계획 및 조직화 곤란($B = -.125, p < .01$), 행동통제 곤란($B = -.101, p < .01$), 정서통제 곤란($B = -.062, p < .01$), 부주의($B = -.113,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정서통제 곤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요인 가운데 행동통제 곤란($B = .352, p < .001$)과 정서통제 곤란($B = .228, p < .001$)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계획 및 조직화 곤란과 부주의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 $p < .01$, *** $p < .001$

<그림 5> 모의 감정코칭반응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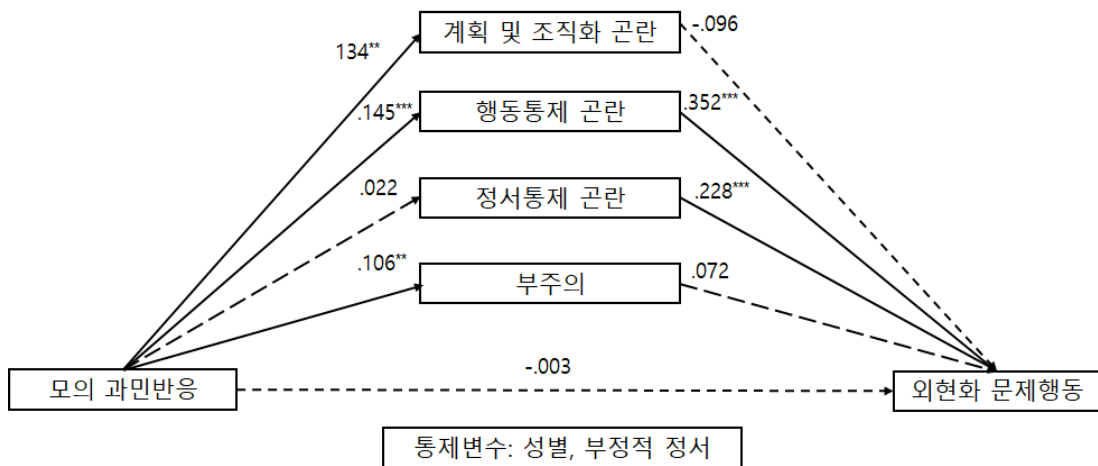
모의 감정코칭반응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의 감정코칭반응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의 감정코칭반응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행기능 곤란을 통한 총 간접효과($B = -.046$, 95% CI = $-.085 \sim -.010$)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요인 중 행동통제 곤란을 통한 간접효과($B = -.036$, 95% CI = $-.067 \sim -.01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모의 감정코칭반응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행동통제 곤란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를 위로해주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감정코칭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은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일에 곤란함을 덜 느끼고, 이는 낮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연결됨을 의미한다.

<표 8> 모의 감정코칭반응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B	SE	LLCI	ULCI	<i>t</i>	<i>p</i>
총효과	-.058	.036	-.129	.013	-1.592	.112
직접효과	-.012	.032	-.075	.052	-.362	.717
총 간접효과	-.046	.019	-.085	-.010		
간접효과						
계획 및 조직화 곤란	.012	.007	.000	.029		
행동통제 곤란	-.036	.015	-.067	-.010		
정서통제 곤란	-.014	.009	-.033	.001		
부주의	-.008	.006	-.022	.001		

(2) 모의 과민반응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모의 과민반응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분석한 모형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먼저 모의 과민반응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의 과민반응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모의 과민반응이 계획 및 조직화 곤란($B = .134, p < .01$), 행동통제 곤란($B = .145, p < .001$), 부주의($B = .106,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정서통제 곤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요인 중 행동통제 곤란($B = .352, p < .001$)과 정서통제 곤란($B = .228, p < .001$)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계획 및 조직화 곤란과 부주의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 $p < .01$, *** $p < .001$

<그림 6> 모의 과민반응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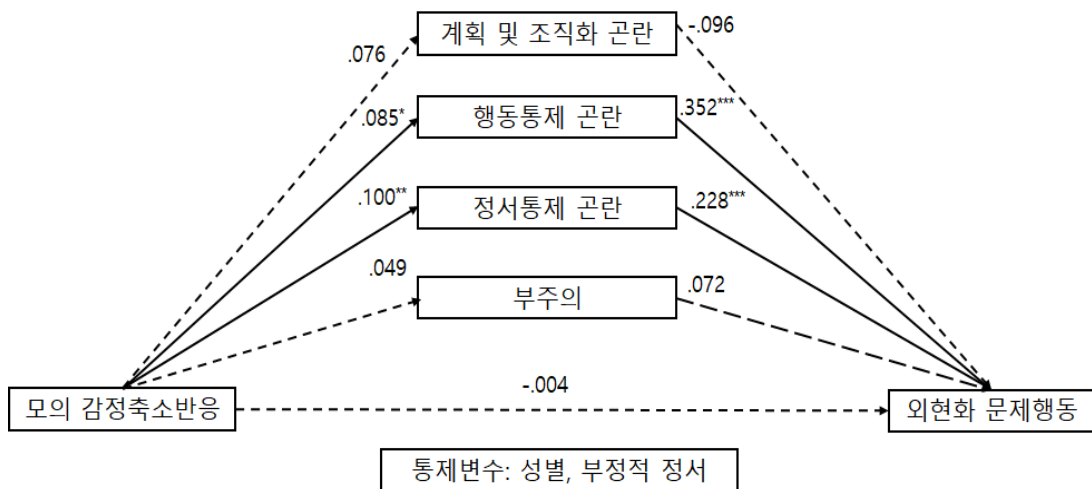
모의 과민반응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표 9>와 같다. 모의 과민반응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의 과민반응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행기능 곤란을 통한 총 간접효과(B = .051, 95% CI = .014 ~ .088)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요인 중 행동통제 곤란을 통한 간접효과(B = .051, 95% CI = .022 ~ .08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모의 과민반응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행동통제 곤란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아동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의 수준보다 과도하게 민감해하며 지나치게 감싸주시려 하는 과민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은 거칠게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능력에 결함을 보이고, 이는 신체적 공격성이나 파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모의 과민반응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B	SE	LLCI	ULCI	t	p
총효과	.048	.038	-.027	.122	1.251	.211
직접효과	-.003	.034	-.070	.063	-.101	.920
총 간접효과	.051	.019	.014	.088		
간접효과						
계획 및 조직화 곤란	-.013	.008	-.030	.000		
행동통제 곤란	.051	.016	.022	.084		
정서통제 곤란	.005	.008	-.009	.022		
부주의	.008	.006	-.001	.021		

(3) 모의 감정축소반응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모의 감정축소반응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분석한 모형은 <그림 7>과 같다. 먼저 모의 감정축소반응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의 감정축소반응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모의 감정축소반응이 행동통제 곤란($B = .085, p < .05$)과 정서통제 곤란($B = .100,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계획 및 조직화 곤란과 부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요인 가운데 행동통제 곤란($B = .352, p < .001$)과 정서통제 곤란($B = .228, p < .001$)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계획 및 조직화 곤란과 부주의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7> 모의 감정축소반응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모형

모의 감정축소반응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모의 감정축소반응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의 감정축소반응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행기능 곤란을 통한 총 간접효과($B = .049$, 95% CI = $.006 \sim .098$)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요인 중 정서통제 곤란을 통한 간접효과($B = .023$, 95% CI = $.004 \sim .04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모의 감정축소반응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정서통제 곤란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어머니가 부정적 감정을 공감해주지 않으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감정축소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은 기분변화가 심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정서를 조절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고, 이는 말다툼이나 공격적 행동,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모의 감정축소반응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B	SE	LLCI	ULCI	<i>t</i>	<i>p</i>
총효과	.045	.040	-.033	.122	1.123	.262
직접효과	-.004	.035	-.074	.065	-.123	.902
총 간접효과	.049	.023	.006	.098		
간접효과						
계획 및 조직화 곤란	-.007	.006	-.022	.001		
행동통제 곤란	.030	.017	-.001	.067		
정서통제 곤란	.023	.010	.004	.045		
부주의	.004	.004	-.003	.014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행동의 조기 개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아동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70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감정코칭반응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아동이 짜증이나 화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공감해주는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은 낮은 수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의 과민반응과 감정축소반응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과도한 불안감이나 무시하는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은 높은 수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집행기능 곤란의 하위요인인 계획 및 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및 부주의 모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계획 및 조직화의 어려움이나 행동을 통제하거나 정서를 통제하는 일의 어려움 또는 사소한 일에 주의를 지속하여 집중하는 일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은 높은 수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였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집행기능 곤란 간의 관계에서 모의 감정코칭반응의 경우, 집행기능 곤란의 각 하위요인과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모의 과민반응과 감정축소반응의 경우 집행기능 곤란의 각 하위요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이해해주는 반응을 보이는 어머니의 아동은 집행기능에서 어려움을 덜 경험하지만,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이나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는 어머니의 아

동은 다양한 측면의 집행기능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모의 감정코칭반응과 모의 과민반응 사이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위로해주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감정코칭반응을 보이는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지나치게 감싸주려 하는 과민반응도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감정코칭반응과 모의 과민반응 간의 정적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강지현, 임정하, 2015; 김예지, 2014; 오지현, 2013; 주현정, 2017)과 일관된다.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는 하나의 반응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온전히 수용해주는 어머니가 있는 반면, 감정코칭반응과 과민반응을 함께 보여주는 어머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김지윤과 오지현(2017)은 어머니의 반응을 감정코칭반응, 과민반응 및 감정축소반응 각각의 수준을 단편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반응을 동시에 사용하는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유사성에 따라 집단 유형을 도출한 바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감정코칭반응과 과민반응 간의 정적 상관을 나타낸 본 연구 결과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선형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집행기능 곤란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제변인인 아동의 부정적 정서, 그리고 정서통제 곤란, 계획 및 조직화 곤란, 모의 감정코칭반응이 내재화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부정적 정서의 수준이 높고, 정서를 통제하는 일이나 계획 및 조직화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감정코칭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은 낮았다. 특히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정적 정서가 불안, 우울, 위축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권연희, 이종희, 2005; 김선희, 2009; 문상희, 이경님, 2012)과 일관된 결과이다. 성미영과 권기남(2010)의 연구에서도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유아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부정적 정서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비해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정적 정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비해 정서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내재화 문제행동과 더욱 연관됨을 의미하며, 내재화 문제행동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는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잘 다루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집행기능 곤란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집행기능 곤란 가운데 행동통제 곤란과 정서통제 곤란, 그리고 통제변인인 아동의 부정적 정서와 성별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행동을 통제하는 일이나 정서를 통제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그리고 여아보다 남아가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의 하위요인 모두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의 독립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보다 아동 자신의 인지적 특성인 집행기능 곤란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모의 감정코칭반응은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계획 및 조직화 곤란을 통해 내재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감정코칭반응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면서, 계획 및 조직화하는 일에서도 아동이 어려움을 덜 느끼도록 만들어주어 내재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모의 과민반응과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계획 및 조직화 곤란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과도한 불편함을 보일수록 아동은 계획 및 조직화하는 일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감정축소반응과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정서통제 곤란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감정축소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은 정서를 통제하는 일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며, 이는 낮은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집

행기능의 간접효과는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함께 아동의 계획 및 조직화 능력과 정서통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둘 필요성을 인식시켜 준다.

다음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모의 감정코칭반응은 행동통제 곤란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이해해주는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은 행동을 통제하는 일에 어려움을 덜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만 6세 때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집행기능을 통해 2년 후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밝힌 한영숙과 정영선(2020)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집행기능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낸 Sulik et al.(2015)의 연구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모의 과민반응은 행동통제 곤란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과도한 불안을 보일수록 아동은 행동을 통제하는 일에 어려움을 더 경험하며, 이는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연결되었다. 모의 감정축소반응은 정서통제 곤란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무시하는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은 정서 통제에 어려움을 더 경험하며, 이로 인해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냄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공격성 간의 관계를 집행기능이 매개하였다고 보고한 김소라와 신나나(2020)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 Sally와 Julie(2002)의 연구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적인 반응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낮은 공격성을 보여준 결과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집행기능 곤란의 간접효과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함께 행동통제 능력과 정서통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아동의 정서통제 곤란이 모의 감정축소반응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각각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감정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반응은 아동의 정서통제 능력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어 내재화 문제행동뿐 아니라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하였다. 이는 아동의 정서통제 능력을 높여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감소로 이어지도록 어머니의 반응을 지도하는 부모교육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집행기능 측정에 있어 자기보고식 측정을 사용하였기에 이를 실제 아동의 집행기능 능력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집행기능의 타당한 평가를 위해 양적인 검사수행 점수와 함께 면접이나 관찰 프로토콜을 활용한 질적 정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인과 관계를 검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추후 연구에서 변인 간 양방향적인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 각각이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집행기능 곤란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감정코칭반응, 과민반응 및 감정축소반응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의 조합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집행기능 곤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문제행동을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나누어 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집행기능의 다양한 요인의 간접효과가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문제행동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집행기능을 단일 차원이 아닌 다양한 특성이 반영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이제까지의 연구들(김혜원, 2023; 안소연, 2022; 허무녕, 2023)은 집행기능을 단편적인 인지과정 또는 특정 기술로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집행기능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독립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문제행동 유형에 따른 적절한 개입 방안의 모색과 함께 문제행동 예방 및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현, 오경자(201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령,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1-21.
- 강현지, 임정하(2015).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3(3), 265-277.
- 공영숙, 임지영(2012).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인지적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유아교육학회지*, 32(2), 351-375.
- 공영숙, 임지영(2012). 유아의 기질, 어머니 양육태도, 유아의 정의적 실행기능, 문제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한국아동교육학회지*, 21(4), 135-152.
- 공영숙, 임지영(2013). 유아의 기질과 실행기능이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Latzman의 문제행동 이론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아동교육학회지*, 22(4), 5-24.
- 교육부(2020).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권연희, 이종희(2005).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동의 정서성 및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201-216.
- 김경식, 이현철(2007). 청소년 비행의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7(2), 1-22.
- 김선희(2009). 유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교사-유아관계의 영향. *아동교육연구*, 29(5), 203-224.
- 김선희, 김경연(2001).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 모형. *아동학회지*, 22(1), 19-34.
- 김소라, 신나나(2020).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5), 47-67.
- 김양은(2014). 걸음마기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영아의 사회정서 행동과의 관계: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3), 85-102.

- 김예지(2014).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및 표현부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남은영(201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2(5), 13-28.
- 김지윤, 오지현(2017).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유형의 군집에 따른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차이 검증. *한국보육원학회지*, 12(3), 39-54.
- 김현아, 장혜인(2017).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1), 41-62.
- 김혜원(2023). **아동의 집행기능곤란, 학교적응 및 전반적 행복감 간의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용**.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민정, 박혜원(2011). 주의 문제 유아와 일반유아의 실행기능에 따른 유아교육기관 적용. *인지발달장애학회지*, 2, 13-35.
- 도레미, 조수철, 김봉년, 김재원, 신민섭(2010). 아동기 실행기능의 발달. *한국심리치료학회지*, 2(2), 1-12.
- 문상희, 이경님(2012). 유아의 기질과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69-89.
- 박광향(2009). **자녀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보경, 노지운(2020). 부모의 양육행동이 학령 초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실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1(2), 163-179.
- 박서현, 강기수(2019). 유아기의 부정적 정서성, 수면 식습관문제가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3), 573-600.
- 박인경(2010).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 및 정서조절 능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은(2011). **유아의 정서지능이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일반유아와 주의문제 유아의 비교**.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다겸(2018).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상호인과관계와 예측요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미영, 권기남(2010). 유아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성이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지능 및 개인이해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2), 39-49.
- 송명숙(2016).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우울과 부부갈등, 양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학회지*, 8(4), 39-56.
- 송진영, 김규수(2012).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유아, 교사 관련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7(6), 345-365.
- 송현주(2012). 뇌기반 심리학적 치료와 집행기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4(2), 77-87.
- 송현주(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1), 121-137.
- 안소연(2022). **어머니의 우울증상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기 수면문제의 매개효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효민(2013).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과 정서조절능력이 학령기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중앙적성연구소.
- 오지현(2013).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지현(2014).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정서지능 간 관계: 성별에 따른 탄력성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5(4), 61-78.
- 윤보람(2010). **부모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형(2009). 집행기능의 이해: 학교심리학적 적용을 위한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8(2), 123-147.
- 이윤정(2019).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유아의 상위수준 사고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정, 공영숙, 임지영(2014).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13-26.
- 이은경, 이양희(2006).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4), 93-115.
- 이은주(2010).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종단적 공동발달 : 잠재성장 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1(4), 171-200.
- 임정하(2006).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와 청소년의 보고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4(6), 103-111.
- 장영애, 이영자(201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183-205.
- 정재훈, 이혜진(2015). 중학생의 내재화 문제와 비행의 관계: 도덕적 판단력의 조절효과 및 성차. *청소년학연구*, 22(3), 261-286.
- 주현정(2017).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정서표현신념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좌현숙(2018). 아동기 사회적 위축문제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요인: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아동교육학회지*, 27(1), 257-271.
- 차기주(2015).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과 모의 상호작용 양상 및 특성 간 관계. *유아교육연구*, 35(2), 117-141.
- 한기표(2019). **행동억제체계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 정서표현억제와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영숙, 정영선(2022).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성 및 학업능력에 미치는 종단적 경로: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 역할. *아동학회지*, 43(3), 247-261.
- 허미정, 장석진(2012). 가족기능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3), 1211-1231.

허무녕(2023).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문제행동의 변
화궤적에 따른 잠재집단 간 중단적 이행양상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1). Behavioral problems and
competencies reported by parents of normal and disturbed children aged
four through sixte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6*, 1-82.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Burlingto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C: Author.

Anderson, P. (2002). Assessment and development of executive function
during childhood. *Child Neuropsychology, 8*, 71-82.

Baddeley, A. D., & Hitch, G. (1974). Working memory. *In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8*, 47-89.

Bernier, A., Carlson, S. M., & Whipple, N. (2010). From external regulation to
self-regulation: Early parenting precursors of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81*(1), 326-339.

Blair, C. (2002). School readiness: Integrating cognition and emotion in a
neurobiological conceptualization of children's functioning at school
entry. *American Psychologist, 57*, 111-127.

Buck, R. (1984).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New York: Guilford.

Dunn, J., Brown, J. R., & Bear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48-455.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 241-273.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K. I.,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 Eisenberg, N., Sadovsky, A., Spinrad, T.L., Fabes, R. A., Losoya, S. H., Valiente, C., Shepard, S. A. (2005). The relations of problem behavior statu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effortful control, and impulsivity: Concurrent relations and prediction of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193-211.
- Eisenberg, N., Valiente, C., Spinrad, T.L., Cumberland, A., Liew, J., Reiser, M., Losoya, S.H. (2009). Longitudinal relations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impulsivity, and negative emotionality to their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co-occurring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45(4), 988-1008.
- Espy, K. A., McDiarmid, M. M., Cwik, M. F., Stalets, M. M., Hamby, A., & Senn, T. E. (2004). The contribution of executive functions to emergent mathematic skills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26, 465-486.
- Fenesy, M. C. & Lee, S. S. (2018). Executive functioning mediates predictions of youth academic and social development from parenting behavior.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43(8), 729-750.
- Gioia, G. A., Isquith, P. K., & Guy, S. C. (2001). *Assessment of executive*

functions in children with neurological impairment. Psychological and developmental assessmen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chronic conditions, New York: Guilford.

- Gioia, G. A., Isquith, P. K., Retzlaff, P. D., & Espy, K. A. (200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 (BRIEF) in a clinical sample. *Child Neuropsychology*, 8(4), 249-257.
- Graziano, P. A., Reavis, R. D., Keane, S. P., & Calkins, S. D. (2007). The role of emotion regulation and the student teacher relationship in children's academic succes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5, 3-19.
- Grazino, P. A. (2009).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hot" executive functions across early childhood: Contributions on maternal behavior and tempera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North Carolina, USA.
- Granvald, V., & Marciszko, C. (2016). Relations between key executive functions and aggression in childhood. *Child Neuropsychology*, 22(5), 537-555.
- Hughes, C., & Ensor, R. (2008). Does executive function matter for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1-14.
- Krause, E. D., Mendelson, T., & Lynch, T. R. (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Child Abuse Neglect*, 27, 199-213.
- Kring, A. M., Smith, D. A., & Neale, J. M.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ositional expressiveness :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934-949.
- Lilienfeld, S. O. (2003). Comorbidity between and within childhoo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disorders: Reflections and direct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 285-291.
- Ogilvie, J. M., Stewart, A. L., Chan, R. C. K., & Shum, D. H. K. (2011). Neuropsychological measures of executive function and antisocial behavior :

- A meta-analysis. *Criminology*, 49(4), 1063-1107.
- Poland, S. E., Monks, C. P., & Tsermentseli, S. (2016). Cool and hot executive function as predictors of aggression in early childhood: Differentiating between the function and form of aggressio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181-197.
- Riggs, N. R., Blair, C. B. & Greenberg, M. T. (2003). Current and 2-year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executive function and the behavior of 1st and 2nd grade children. *Child Neuropsychology*, 9, 267-276.
- Rohlf, H. L., Holl, A. K., Kirsch, F., Krahè, B., & Elsner, B. (2018). Longitudinal links between executive function, anger, and aggression in middle childhood. *Frontiers in Behavioral Neuroscience*, 12, 27.
- Rubin, K. H., Coplan, R. J.,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 Sally, R. R., & Julie, A. H. (2002). Family expressiveness and parental emotion coaching : their role i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6), 657-667.
- Schroeder, V. M. & Kelley, M. L. (2010).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s related to executive functioning in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0(10), 1285-1298.
- Schultz, D., Izard, C. E., & Bear, G. (2004). Children's emotion processing: Relations to emotionality and agg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2), 371-388.
- Sulik, M. J. Blair, C., Mills-Koonce, R., Berry, D., & Greenberg, M. (2015). Early parenting and the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Longitudinal mediation through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Child Development*, 86(5), 1588-1603.
- Thomas J. Dishion, Véronneau, M. H., & Myers, M. W. (2010). Cascading peer dynamics underlying the progression from problem behavior to violence in early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2(3), 603-619.

<부록>

아동의 일상생활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여러분 개인의 응답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습니다(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생활환경복지학과
석사과정 강슬기

* 나는 위 내용을 읽었으며, 설문지 작성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 자신과 일치하는 곳에 √ 표 해 주세요.

1. 여러분의 성별은?

- ① 남자 () ② 여자 ()

2. 여러분의 학년은?

- ① 초등학교 5학년 () ② 초등학교 6학년 ()

3. 각 문항을 읽고, 지난 6개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 표 해주세요.

문 항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1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2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1	2	3
3	나는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 놓지 않는다.	1	2	3
4	나는 수줍어한다.	1	2	3
5	나는 기운이 별로 없다.	1	2	3
6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1	2	3
7	나는 남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1	2	3
8	나는 어지럼증이 있다.	1	2	3
9	나는 매우 피곤하다고 느낀다.	1	2	3
10	나는 몸이 쑤시고 아프다.	1	2	3
11	머리가 아프다.	1	2	3
12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껍다.	1	2	3

4. 각 문항을 읽고, 지난 6개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surd 표 해주세요.

문 항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13	눈에 이상이 있다.	1	2	3
14	두드러기 혹은 기타 피부에 이상이 있다.	1	2	3
15	배가 아프다.	1	2	3
16	토를 한다.	1	2	3
17	나는 외롭다고 느낀다.	1	2	3
18	나는 잘 운다.	1	2	3
19	나는 일부러 나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으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다.	1	2	3
20	나는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봐 두렵다.	1	2	3
21	나는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22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1	2	3
23	나는 남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24	나는 쓸모가 없고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1	2	3
25	나는 신경질이 나고 긴장된다.	1	2	3
26	나는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 한다.	1	2	3
27	나는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28	나는 쉽게 부끄러워져 얼굴이 빨개진다.	1	2	3
29	나는 의심이 많다.	1	2	3
30	나는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31	나는 걱정이 많다.	1	2	3
32	나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1	2	3
33	나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1	2	3
34	나는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1	2	3
35	나는 가출을 해본 적이 있다.	1	2	3

5. 각 문항을 읽고, 지난 6개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surd 표 해주세요.

문 항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36	나는 불을 지른다.	1	2	3
37	나는 우리집의 물건을 훔친다.	1	2	3
38	나는 우리집 아닌 다른 곳에서 물건을 훔친다.	1	2	3
39	나는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한다.	1	2	3
40	나는 수업을 빼먹거나 학교에 무단결석하기도 한다.	1	2	3
41	나는 말다툼을 자주 한다.	1	2	3
42	나는 자랑을 많이 한다.	1	2	3
43	나는 남에게 못되게 군다.	1	2	3
44	나는 관심을 많이 끌려고 노력한다.	1	2	3
45	나는 내 물건을 부순다.	1	2	3
46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다.	1	2	3
47	나는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1	2	3
48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시샘을 잘한다.	1	2	3
49	나는 싸움을 많이 한다.	1	2	3
50	나는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1	2	3
51	나는 고함을 많이 지른다.	1	2	3
52	나는 잘난 척 하거나 남을 웃기려고 싱거운 짓을 한다.	1	2	3
53	나는 고집이 세다.	1	2	3
54	내 기분이나 감정은 갑자기 변화하곤 한다.	1	2	3
55	나는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1	2	3
56	나는 남을 잘 놀린다.	1	2	3
57	나는 성질이 급하다.	1	2	3
58	나는 남들을 신체적으로 해치겠다고 위협한다.	1	2	3
59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소란스럽다.	1	2	3

6.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surd 표 해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힘들다.	1	2	3	4	5
2	해야 할 일(숙제, 공부, 심부름 등)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	2	3	4	5
3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거의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하는 편이다.	1	2	3	4	5
4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5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끝까지 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	1	2	3	4	5
6	머릿속으로 생각은 잘 하는데 실천은 하지 못한다.	1	2	3	4	5
7	자신이 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8	어떤 내용을 이해할 때 부분적으로는 알겠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1	2	3	4	5
9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 알아서 하지 못한다.	1	2	3	4	5
10	어떤 활동이든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획해서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11	숙제, 공부, 심부름 등 일을 할 때 집중해서 하지 못한다.	1	2	3	4	5
12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내 행동을 조절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다.	1	2	3	4	5
13	나는 너무 거칠게 행동한다.	1	2	3	4	5
14	어른이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숙제, 공부, 심부름 등을 하기 어렵다.	1	2	3	4	5
15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방해할 때가 있다.	1	2	3	4	5
16	앉아서 집중해야 할 때 자리에 잘 앉아 있지 못한다.	1	2	3	4	5
17	출을 서서 있어야 할 때 서 있지 않고 잘 벗어난다.	1	2	3	4	5

7.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surd 표 해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나의 행동이 남을 귀찮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알아채지 못한다.	1	2	3	4	5
19	누군가 내옆을 지키지 않으면 숙제나 공부를 꾸준히 하지 못한다.	1	2	3	4	5
20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낸다.	1	2	3	4	5
21	상황에 따라 기분 변화가 심하다.	1	2	3	4	5
22	잘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낸다.	1	2	3	4	5
23	자주 울컥한다.	1	2	3	4	5
24	그럴 일이 아닌데도 잘 투덜거린다.	1	2	3	4	5
25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한다.	1	2	3	4	5
26	원래 계획한 일과 달라지면 순간 화가 치솟는다.	1	2	3	4	5
27	기분 변화가 심하다.	1	2	3	4	5
28	내 물건을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	1	2	3	4	5
29	숙제를 다 해가도 선생님께 제출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1	2	3	4	5
30	방의 정리정돈을 하지 못한다.	1	2	3	4	5
31	교과서나 학용품 등을 잘 잃어버린다.	1	2	3	4	5
32	방이나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1	2	3	4	5
33	책상이 늘 어질러져 있다.	1	2	3	4	5
34	해야 되는 일을 잘 잊어버린다.	1	2	3	4	5

8. 각 문항에 나오는 감정을 최근 6개월 동안 자신이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 표 해주세요.

나는 요즈음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1	슬프다	1	2	3	4
2	부담스럽다	1	2	3	4
3	싫증나다	1	2	3	4
4	부끄럽다	1	2	3	4
5	후회하다	1	2	3	4
6	그립다	1	2	3	4
7	죄송스럽다	1	2	3	4
8	마음이 아프다	1	2	3	4
9	귀찮다	1	2	3	4
10	섭섭하다	1	2	3	4
11	어이가 없다	1	2	3	4
12	허전하다	1	2	3	4
13	두렵다	1	2	3	4
14	짜증나다	1	2	3	4
15	재미없다	1	2	3	4
16	몹시	1	2	3	4
17	걱정스럽다	1	2	3	4

나는 요즈음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18	불만스럽다	1	2	3	4
19	외롭다	1	2	3	4
20	아쉽다	1	2	3	4
21	억울하다	1	2	3	4
22	조급하다	1	2	3	4
23	지겹다	1	2	3	4
24	속상하다	1	2	3	4
25	실망스럽다	1	2	3	4
26	불쌍하다	1	2	3	4
27	우울하다	1	2	3	4
28	화나다	1	2	3	4
29	무섭다	1	2	3	4
30	한심하다	1	2	3	4
31	샘나다	1	2	3	4
32	배신감을 느끼다	1	2	3	4
33	답답하다	1	2	3	4

9. 평소 어머니께서 여러분에게 보인 모습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 표 해주세요.

* 사별이나 이혼 등의 이유로 어머니가 안 계실 경우 주로 나를 돌봐주시는 분을 생각해서 해도 됨.

내가 부정적 감정(예, 화, 짜증, 불안 슬픔 등)을 겉으로 드러내거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의 어머니(또는 주 양육자)는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신다.	1	2	3	4	5
2	나의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	1	2	3	4	5
3	내가 다음에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같이 짜 주신다.	1	2	3	4	5
4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었는지에 대해 물어보신다.	1	2	3	4	5
5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게 옆에서 응원을 해주신다.	1	2	3	4	5
6	나를 위로해주시고 그 일을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1	2	3	4	5
7	내가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신다.	1	2	3	4	5
8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을 이해하시는 것 같다.	1	2	3	4	5
9	나를 안아주시거나 어깨를 두드려주신다.	1	2	3	4	5
10	나를 이해해주리라 생각하여 어머니에게 감정을 말하기 편하다.	1	2	3	4	5
11	내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 과하게 신경을 쓰신다.	1	2	3	4	5
12	나를 지나치게 감싸주려 하신다.	1	2	3	4	5
13	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지나치신 것 같다.	1	2	3	4	5
14	나보다는 오히려 어머니가 더 힘들어하신다.	1	2	3	4	5
15	내가 말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내 걱정을 나보다 더 많이 하신다.	1	2	3	4	5
16	내가 말을 해도 별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1	2	3	4	5
17	나의 얘기를 듣지도 않으시고 막연하게 '좋아지겠지'라고 하신다.	1	2	3	4	5
18	내 기분이 어떤지, 왜 그런지 알려고 하지 않으시고 위로만 하신다.	1	2	3	4	5
19	내 기분이 어떤지는 생각도 않으시고 내 실수나 잘못에 대해 지적하신다.	1	2	3	4	5
20	'신경 쓸 일이 아닌데 왜 그러냐'며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는다.	1	2	3	4	5
21	나의 마음보다는 어머니가 궁금한 얘기만 물어보신다.	1	2	3	4	5

The Influence of Maternal Reactions to Children' 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on Problem Behaviors among Children
- The Mediating Effects o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

Kang Seul Gi

Department of Human Ecology & Welfar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differentiated interventions on various types of problem behaviors. To begin with,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maternal reaction to children' 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s of children, as well as the mediating effect o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Children' s sex and negative emotions were used as the control variables. A self-report survey was conducted on 5th- and 6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Jeju Island, and data from 709 studen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aternal reaction to children' 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showed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internalizing or externalizing behaviors. In the case of internalizing behaviors, children' s negative emotions, emotional control difficulty, planning and organizing difficulty, and the mother' s emotion-coaching response had significant effects. For externalizing behaviors, children' s sex, negative emotions, behavior control difficulty and emotional control difficulty

showed significant effects.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 o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on the effect of the maternal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on problem behaviors. It was found that planning and organizing difficulty and emotional control difficulty, which are internalizing behaviors, ha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In terms of externalizing behaviors, behavior control difficulty and emotional control difficulty ha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effects of the maternal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and the sub-factors o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varied according to the type of problem behaviors. In short,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enhances our understanding of children's problem behaviors. Furthermore, by investigating the independent effects of the sub-factors o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through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this study unearthed the specific mechanism by which the maternal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leads to internalizing or externalizing behavior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s findings are expected to be useful as a reference for educators and counselors in understanding children and preventing problem behaviors.

key words : internalizing behaviors, externalizing behaviors, the maternal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